

흰 까치 이야기

高 銀

시인

옛날 이야기 하나 어때? 괜찮지? 정말 괜찮지?

고려 고종 40년이면 최충헌일당의 군사독재의 전황이 세상을 주물러대던 때가 아니던가.

그때 卓然이라는 스님이 개경으로부터 남녘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룡산 기슭의 한 두메마을을 지나다가 한 마리의 까치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까치가 이상한 바, 몸은 희고 가슴은 붉고 꼬리만이 검은지라 그 마을에 사는 장복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본즉 그 까치가 마을에 와서 깃들인 지 7년이나 되는데 그 새끼가 해마다 올빼미의 밥이 되어 그 어미의 슬픔이 극에 이르러 1년이 지나자 머리가 희기 시작했다. 2년이 지나자 그 머리가 다 하얗고 3년이 지나자 온몸이 다 하얗게 되고 말았다.

슬픔의 극한은 백색인가. 이렇게 흰 까치가 애통해 하며 울어댈 때마다 마을사람들도 그 애통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나서서 올빼미를 쫓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나 그해부터는 올빼미가 없어져서 까치새끼가 잘 자라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흰 까치도 우선 꼬리쪽부터 검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탁연스님이 이 기막힌 날짐승의 모성애를 계룡산의 천영스님에게 말했다니 천영스님 탄식하며 말하되 “그것이 바로 새머리를 가진 사람(禽頭人)이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이를 7언시로 읊어내기까지 했다. 그 시는 원한의 기원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했고 그 원한의 핏자국이 단전의 붉은 빛을 이루었다 했다.

이 흰 까치 이야기는 성현의 「慵齋叢話」와 「증보문헌비고」에 소개되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새머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언급이 주로 되어 있다. 그 점에서는 불교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미까치가 제 새끼의 죽음에 대한 원한과 슬픔을 어떤 應報로만 돌려놓을 수 없다.

그로부터 천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오늘은 짐승도 아닌 사람으로써 어미가 제 딸을 윤락의 길로 팔아먹는 패륜의 시대이기도 하다. 조선 봉건시대 관북지방에서 극심한 가난으로 말미암아 막 태어난 간난아기를 죽여 파묻는 일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나와서 굶어죽느니 차라리 어미의 손에 죽어 그 모친 고생을 하지 말라는 충정의 격렬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중앙의 어떤 판서는 태조의 성역인 관북에서 이런 야만의 불상사가 났으니 극형으로 징치해 마땅하다고 노발대발하기도 했다.

이변의 사건도 가난 때문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조선조 관북 여인의 그 사건과는 전혀 다른 점에서 사람이 할 노릇이 아니었다.

이제 사람이 한갓 텃새만도 못하게 되고 말았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지금 이 땅에는 몇백만권의 책이 나오고 있다. 나에게도 만권의 책이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얼마나 이 험악한 세상을 그 한 구석이라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책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이 세상으로 나와서 삶의 진실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시평	2	새롭게 싹틔워야 할 진보성의 씨앗 — 이명호 '신달자문학'의 베스트셀러화현상을 생각한다
초점	4	'연변텍스트' 국내재출간, 문제는 없나 중복출판 등 폐해 드러나... 한민족 끈 있는 출판교류를
화제의 책	5	출판금고, 「어린이에게 권하는 책」 등 폐내
리뷰	6	“유통구조개선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 출판연구소 「출판업계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7	경영현대화 절감하나 개선노력은 미흡 문화부 조사 「전국 서점업 경영실태」
서평	8	정진석 「한국언론사」 — 유재천 회르츠와 외 「자연인식과 세계관」 — 홍성욱
	9	현상학회 「후설과 현대철학」 — 이영호 박광희 「보이는 EC, 감춰진 유럽」 — 유승필
	10	임진택 「민중연회의 창조」 — 강영희 김향숙 「문없는 나라」 — 임현영
확대서평	11	민주적으로 관리되는 기술사회 제시 — 장희익 조센 애거시 「현대문명의 위기와 기술철학」
출판화제	12	폭넓게 확산되는 공무원저술 발간열기 미개척 분야 전문서 상당수... 공부하는 공직자상 심어줘
	14	뿌리내리는 과학도서 시리즈출판
	15	가사노동의 사회학 다룬 책 는다
	20	사전출판, 넓어지고 깊어졌다
시론	16	에이젠스타인이 우리영화에 갖는 의미 — 진이정 「이미지의 모험」과 「영화연출강의」를 중심으로
해외화제	17	'시장경제' 몸살 앓는 동유럽출판계 독일·폴란드·체코 3국의 경우
세미나	18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의 저작권상황 제9회 저작권전문가 심포지움
뉴스	19	'문학과지성시인선' 백권 발간
자료	21	이달의 청소년도서
이 책 그 사람	22	「한줌 재도 없이...」 낸 정태승씨 「어두운 시대의...」 낸 김건씨
	23	「증언연극사」 낸 고설봉씨 「뉴스를 말씀...」 낸 이계진씨
세계의 출판	24	북경민주화운동 생생히 증언·외
시집서평	26	황학주 「갈 수 없는 쓸쓸함」 / 장정일
독자서평	27	「알개논의 무덤 위에 한송이 꽃을」 / 박상준
	28	새로 나온 시집
	29	어린이책 들춰보기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 화제의 책 / 이색출판
	40	신간목록
	47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8	프리즘 / 독서퀴즈 / 정기구독 안내